

- 목 차 -

0. 소개말 ( ~ 14. 06. 30.)	01
1. 필기 준비 (14. 06. 30. ~ 14. 08. 03.)	02
2. 필기 시험 기간 (14. 08. 04. ~ 15. 06. 27.)	03
가. 국어	05
나. 영어	06
다. 한국사	08
라.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09
3. 면접 준비 기간 (15. 07. 31. ~ 15. 09. 07.)	10
4. 맺는말	11

0. 소개말 ( ~ 2014. 06. 3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제가 면접 때 사용했던 문구이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이 없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목표 의식과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때 순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빨리 하고 싶은 것을 찾았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에 비교적 단시간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이나 잡지 등에 관심이 많았고, 부모님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기에 어릴 때부터 많은 도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중에 이러한 책들을 사람들과 나누어 읽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책에 대한 관심도 줄어 성장하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신문에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정보 서비스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서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느꼈던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비로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통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서 공무원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사서로서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 둘을 병행해서 준비할 것인지... 최초 내린 결정은 세 번째 안으로, 어차피 전공 지식을 활용하려면 학과를 졸업해야 할 것이고, 학점과 공무원 공부를 병행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힘들 것이니 대학생 때는 학점 유지와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졸업 후 본격적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공 지식을 살려 취업하든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군 입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병사로 다녀오기보다, 기간이 조금 길지만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며 간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ROTC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대학 졸업 후 임관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겨울방학부터 문헌정보학과 학부생으로서, 그리고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점을 유지하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4학년 때는 교직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졸업 시 평균 학점 4.24(/4.50)에 자격증 9개[사서교사 2급, 2급 정사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PC Master(정비사), CS Leaders(관리사), 정보처리기사,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MOS 2007 Master]를 취득하는 것으로 2008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년 동안 즐겁게 다녔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졸업 후 2012년 3월부터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간부로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추후 사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군 생활 중에는 전역 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공부하기 위해 월급을 저축하는 것 외엔 다른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신병교육대대 통신 소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30일 무사히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생활에 뛰어들게 됩니다.

## 1. 필기 준비 (14. 06. 30. ~ 14. 08. 03.)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서 공무원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시험들을 언제 시행하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과 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네이버로 거처를 옮긴 사서마을(<http://cafe.naver.com/lisleader>)과 네이버 신인수 선생님의 카페(<http://cafe.naver.com/leaderstudy>)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공통 과목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9꿈사 카페(<http://cafe.daum.net/9glade>), 네이버 공드림 카페(<http://cafe.naver.com/gugrade>)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sup>1)</sup>

시험을 통해 사서직을 선발하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 지방직(이하 서울시), 서울시 외 시도별 지방직(이하 지방직), 시도별 교육청, 육·해·공군 군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등이 있으며, 저는 그 중에서 비교적 시험 난이도가 낮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부산시 지방직 사서 공무원 선발은 12년 0명, 13년 7명, 14년 10명으로 선발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고, 타 직렬에 비해 소수만 선발하는 편이지만 사서직은 필수적으로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그 때문에 합격 점수도 행정직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전 합격 점수들과 시험 후기들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목표 점수를 평균 80점으로 잡고, 최소 평균 75점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인원도 12년 미채용, 13년/14년에는 채용 인원 증가 추세를 보였기에 내년(15년)에는 뽑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여, 내년(15년) 시험에서 떨어지든, 채용이 없어 내후년(16년) 시험을 보든 간에 길어도 2년 이내에 끝장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sup>2)</sup>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노량진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 집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해 노량진을 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또한 집-도서관(혹은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 밖에서 식사를 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집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앉았을 때 집중이 어디서 하던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고, 부모님은 출근 후 비교적 늦게 들어오시는 편이며, 이 당시 동생은 군인이었기에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학원 개설 강의(이하 실강)가 아닌 동영상 강의(이하 인강)를 수강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경우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을 응시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신인수 선생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이 세 가지 공통 과목에는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 시험 후기들을 바탕으로 과목별로 5명의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이후 공무원 사이트들을 돌아다녀보며 선생님들의 이력과 홍보자료, 교재 집필 이력, 연간 강의 커리큘럼 등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보며 수업 스타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어는 김재정(현 패스원), 영어는 신성일(현 윈플스), 한국사는 최진우(현 월비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sup>3)</sup> 그리고 수험 시간표를 작성했는데, 대원칙으로 수험 기간 중에는 반드시 이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신중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간표 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강박적인 부담은 가지지 않았습니다.<sup>4)</sup>

이후에는 제 주변을 수험 생활에 어울리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쉬기만 했던 방을 공부하기 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책상 위를 인강 수강용 PC와 수험서용 북앤드, 탁상시계를 제외하고 전부 다른 곳으로

1) 여기서 연간 시험 전체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위에 소개된 카페들과 패스원(<http://www.passone.net>)에서 신인수 선생님의 무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시면 쉽게 시험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내용들은 매년 공무원 시험 접수 및 시행 후 지원율과 실 경쟁률, 합격선 점수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들과 위에 언급했던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해당 시험과 직렬에 대해 언급했던 정보들을 종합해서 목표 점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3) 각 강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2. 필기 수험 기간(14. 08. 04. ~ 15. 06. 27.)'에서 언급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무원 선생님들의 강의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강의 스타일이 '과목별로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과 맞는 강의'라는 기준을 두고 선생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제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설명해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직접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험 기간에 선생님을 바꾸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별로 연간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 본인이 준비하던 수험 진도에 어긋나거나, 선생님별로 수험에서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고 중심을 이동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는 자칫하면 수험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초 작성했던 시간표를 변동 없이 다음 해(15년) 2월까지 활용하였고,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공부했던 기간 동안에는 실강 시간에 따라 시간표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전체 틀을 변경하진 않는 선에서 조정하였고, 이후 4월 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존의 시간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표는 아래 '2. 필기 수험 기간(14. 08. 04. ~ 15. 06. 2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옳고, 공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을 전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용 중이던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전부 탈퇴하는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공부 외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 각종 시험 후기를 바탕으로 고려했던 사항으로는 1년이라는 단위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타고 있었기에 휴식일로 정한 매주 일요일, 주 1회 고정적으로라도 타는 것으로 운동을 갈음하려 하였고, 홍삼 진액과 같은 자양강장제는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부터 먹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점심/저녁 먹는 시간 동안에는 수험서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을 하는 것으로 소통 욕구 충족(커뮤니티 사이트)과 전공 관련 이슈(도메리 및 관련 카페) 및 사회 이슈(뉴스 사이트)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고, 예비일(일요일)을 활용해 영화를 보러 가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고려하지 못한 사항의 경우(병에 걸린다든지, 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등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수험 기간에 대한 준비와 전역을 핑계로 재충전을 하며 보냈던 7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8월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에 돌입하게 됩니다.

## 2. 필기 수험 기간 (14. 08. 04. ~ 15. 06. 2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8:00 ~ 09:00	예비일	아침 식사					
09:00 ~ 13:0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8:00		자료 조직	정보 봉사	자료 조직	정보 봉사	자료 조직	정보 봉사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3:00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표 1. 표준 시간표>

먼저 시간표는 위 <표 1>에서 보드시피 하루 3과목, 과목당 4시간의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하루의 마지막 과목(국어, 한국사)은 모자라다고 생각될 경우 23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통 1-2시간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여 새벽 1시 넘어서 잠든 경우가 많았고, 피로한 경우에도 최대한 과목당 할당 시간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공부 흐름으로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인강을 기본으로 한 기초 이론서를 1회독 하였으며,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추가 심화 이론 인강 수강과 추가 이론 인강이 없는 과목의 경우에는 2회독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체력적으로 힘들어 홍삼 진액을 먹으며 체력을 보강하였으며<sup>5)</sup>, 남은 수험 시간에 비해 현재의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껴 예비일(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부터 추가로 공부를 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이후 운동을 다소 소홀히 하게 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문제풀이에 집중했는데, 갑작스럽게 신인수 선생님께서 2월, 4월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2월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sup>6)</sup> 신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 집에서 밤에 잠만 자고, 공부와 식사는 전부 밖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15년 2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생활 패턴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으며, 친구 집에서 숙박하는 비용과 식비, 독서실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고, 신인수 선생님 강의를 토요일 16:00 ~

5) 저는 홍삼 진액을 이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면접 전 날까지 거의 빠짐없이 먹었는데,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체력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으나, 수험 기간에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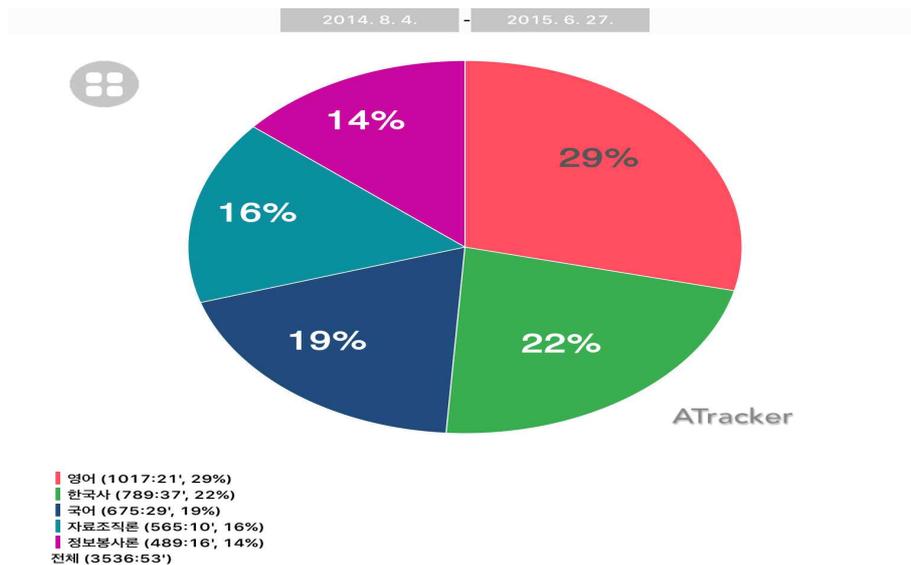
6) 이후 4월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셨으나, 독서실 장기 이용권 신청 등의 문제로 계획했던 대로 4월 강의까지 실감을 수강했습니다.

18:00 문제풀이, 18:40 ~ 22:30 해설 강의로 편성되어 있었기에 이에 맞춰 아래 <표 2>와 같이 시간표를 약간 조정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8:00 ~ 09:00	아침 식사						휴식 및 점심 식사
09:00 ~ 13:0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8:00	국어	자료 조직	정보 봉사	자료 조직	정보 봉사	한국사	전공 문풀
18:00 ~ 19:0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19:00 ~ 23:00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전공 해설

<표 2. 2-4월 임시 시간표>

서울에서 공부하던 기간 중에 시행되었던 4월 18일 국가직 9급 시험은 사서직을 뽑진 않았으나, 공통과목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으로 시험을 보러 다녀왔습니다.7) 이후 신인수 선생님의 4월 문제풀이 강의를 끝나고 4월 26일 다시 집으로 내려와 기존 <표 1>의 시간표로 복귀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전 과목 문제풀이와 추가 회독을 병행하는 것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로 하던 지방직을 2주 앞둔 6월 13일에는 서울시 시험이 있어 12일 저녁 서울에 올라가 13일에 시험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직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고 수험 방향이 달라 비중을 두진 않았으나, 국가직과는 달리 사서직 채용이 있기에 최종적으로 전 과목 시간 배분 연습을 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다녀왔습니다.8) 이후 6월 27일 지방직 일주일 앞두고 문제 풀이를 중단하고 마지막 회독을 하는 것으로 시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프 1. 전체 수험 시간>

7) 이 시험을 통해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한국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해당 과목의 공부 비중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 시험 외에도 수험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모의고사를 구입해서 연습하는 것도 공부의 방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8) 이 시험에서 지방직 시험 문제 풀이 순서와 시간 배분을 '자료조직개론(15분) - 정보봉사개론(10분) - 한국사(15분) - 국어(20분) - 영어(40분)'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실제 지방직 시험을 볼 때 이 때 정했던 것과 유사하게 시간을 배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 국어

국어는 패스원(http://passone.net)의 김재정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이론은 2015년 책을 기준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실용 국어는 문법 파트, 2권 이해 중심의 국어는 독해 파트, 3권 한자 및 지식 국어는 서울시 대비용으로 지방직을 준비하신다면 3권을 제외한 1, 2권만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인강도 1, 2권용과 3권용으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론 강의를 하고, 11월부터 기출 문제풀이, 1월부터 예상 문제 풀이, 3월부터 동형 모의고사, 5월 총정리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강의 커리	재정국어 1, 2권				단원별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동형 모의고사	총정리			
나의 커리	준비 기간	재정국어 1, 2권(1회독) + 1권 2회독				단원별 기출 문제 + 1권 3회독		예상 문제 + 1권 4회독	동형 모의고사 + 1권 5회독		어휘 + 사자성어 + 속담	

<표 3. 국어 커리큘럼>

8월 - 12월: 8월 인강 수강 시작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인강을 바탕으로 '2015년 9, 7급 재정국어' 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정국어 이론 강의는 강의 한 편 자체는 대략 40-45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1권 문법은 약 100강, 2권 독해는 약 80강으로 전체 강의 수가 많은 편으로, 배속 기능을 통해 과목당 할당 시간인 4시간 동안 3-4편 정도를 수강하고, 이후 남은 시간 동안에 인강 진도를 나갔던 페이지를 복습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진도는 1권부터 진행하시다가 일정기간 이후 2권 진도를 함께 나가시기 때문에 1권을 다 보시고 2권을 넘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대로 함께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2권 독해의 경우에는 외워야 하는 부분의 비중 보다 개인의 독해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팁과 기출 되는 유형의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기술 습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휘, 사자성어, 속담의 경우 1권의 '제3장 어휘 및 성어' 파트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별도의 시간을 할당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고, 진도에 맞춰 나왔을 때 듣고 외워지는 것은 외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 문제 풀이를 시작했을 때 국어 시간 중 1시간 동안 어휘 20분, 사자성어 20분, 속담 20분을 나눠 외운 후, 남은 3시간 동안 문제 풀이 및 해설, 추가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강 수업을 끝낸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2회독에 들어갔으며 개념들을 봤을 때 그 개념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정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언급하시다시피 9급은 '한자', 7급은 '한문'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한자에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포기하시고 다른 영역(문법이나 독해)에 신경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자격증은 취득하였으나 취득한지 오래되었고 다시 공부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여 포기를 하였고, 이를 전제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 1권 실용 국어의 경우 인강을 들으며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암기하려 하세요. 외우는 것은 나중에라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해하려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만약 설명을 들어도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패스원 홈페이지 선생님 Q&A 메뉴를 통해 질문하고, 반드시 이 시기 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후 문제풀이 시기 때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많아지면 시간 대비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줄어들기에 반드시 이 시기에 이해할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어떤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도 알고 있나 보자'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들을 접할 때 해당 개념을 암기 하지 않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로 나오면 그 문제는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권의 내용은 전부 외운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며,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날 까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회독 수가 늘어날수록 이전 회독에서 외우지 못한 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2권 이해 중심의 국어는 '이런 유형의 독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여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들으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권 실용 국어는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내용을 보고 외워야 하나, 2권 이해 중심의 국어의 경우에는 이 수업 기간에만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고 약간의 암기 포인트만 잘 정리해두시면 인강 수강 이후엔 다시 꺼내 볼 일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월-4월: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돌입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문제를 접했을 때 정말 많이 틀리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틀린 내용에 대한 해설 강의와 책을 찾아보며 복습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들어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내가 외우지 않은 것(혹은 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추후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파트별로 틀리는 문제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1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여 찾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 때 시간 사용은 공부 시작 1시간 동안은 앞에서 언급했듯 어휘 20분, 사자성어 20분, 속담 20분 암기를 하고, 이후 3시간동안 '문제 풀이 - 해설 강의 - 책에서 내용 찾아서 추가/연관 개념 숙지 및 암기'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문제 개수를 정해놓지 않고 공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풀면서 진행을 했고, 이후 어느 정도 적응기에 들어갔을 때 시간당 문제 개수를 정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강 단원별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에서 제공하는 문제 외에도 '2015년 9.7급 재정국어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구매해서 부족한 문제 수를 확보하였습니다. 1권 3회독은 단원별 기출 문제를 끝낸 뒤, 4회독은 예상 문제를 끝낸 뒤에 돌려보았고, 3회독 때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4회독 때에는 2일 이내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습니다. 다만 한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푸는 것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문제를 접했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면 내가 아는 개념과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이거랑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 같다' 까지는 접근하시고 해설을 보세요. 그리고 유사한 개념과 내용이 다시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끔 그 순간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가려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점도 많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여 만들지 않고 틀리는 순간 그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해 오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5-6월: 저는 총정리 강의를 따로 듣지 않았고, 이 시기 때에는 동형 모의고사 강의 문제 및 일부 남은 재정국어 기출문제집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본 20문제 20분을 한 세트로 잡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한 문제당 최단경로 풀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간적 압박을 받으며 문제를 푸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틀리는 부분이나 외우지 못한(혹은 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즈음 이 때까지 암기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문제 풀이를 하시며 마지막 회독 전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5회독은 지방직 시험 일주일 전부터 찬찬히 진행하는 것으로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 나. 영어

영어는 윈플러스(<http://winpls.com>)의 신성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신성일 선생님은 정형적인 커리큘럼이 있다기보다 자잘하게 나뉜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법/독해 집중 모의고사가 11~12월 달에도 있고, 3~4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둘을 전부 수강하기보다 두 시기 중 한 시기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고, 남은 시기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강하는 시기(14년)에는 요즘(15년)처럼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한 선생님의 일부 강의만 묶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 패키지가 등장한 시기이기에 그 패키지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b>강의 커리</b>	-		문법이론과 핵심정리		독해 2 + 영역별 기출분석 + 표현 생활영어		실전영문법 555		독해/문법 집중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b>나의 커리</b>	준비 기간	2014 문법이론과 핵심정리 + 2015 문법이론과 핵심정리(2회독)			독해 2		실전영문법 555		표현/생활영어 + 실전영문법 555 교재 2회독	동해/문법 집중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 문법이론 교재 3회독	
		영역별 기출분석 특강			단어 + 속어							

<표 4. 영어 커리큘럼>

8월-11월: 영어 문법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조차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무원 문법의 전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일 선생님은 먼저 문법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편이고, 강의 진행 도중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다시 등장했을 경우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 강의 중에 해당 내용을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한 편의 길이는 약 8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 강의 수는 평균 60-70회차로 비교적 적게 구성되어 있어 그렇게 부담되는 편은 아니며, 영어 공부 시간 4시간 동안 배속 기능을 통해 약 2-3편의 강의를 듣고, 남은 시간 동안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9월부터 2015년 강의를 개강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4년 강의를 먼저 듣고, 강의를 끝나자마자 2015년 강의를 듣는 것으로 2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단어는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을 공부할 때 별도로 단어 교재를 보지 않고 문법 공부 시 등장하는 단어 정도만 외우자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자마자 단어/숙어 암기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시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영어 단어/숙어는 하나라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포인트 : 영어 문법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은 계산식이고, 그 문제에서 올바른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즉,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계산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각 문장별로 어떤 계열의 계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문장 구조 분석), 이 상황에서 적절한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문장 구조에 맞게 각각 올바른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 이 말이 무슨 소린지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요약하면 문법 문장을 접했을 때 그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은 1월 즈음 시작하는 '실전영문법 555' 강의에서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8월-11월)에는 문법 암기와 문제 유형 적용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교재에 있는 문제는 물론 강의 시작 전에 족지 시험의 형식으로 문제를 배부하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 다른 과목들보다 비교적 일찍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숙어는 저는 1월부터 암기하기 시작했는데, 국어와 마찬가지로 공부 시작 시 30분 단어, 30분 숙어로 나눠서 외운 이후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초에는 각각 하루 25개씩 개수를 지정하여 외웠다가, 교재 한 바퀴 순환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단어 관련 교재를 보기보다 기존에 봤던 교재에서 개수를 정하지 않고 20분 동안 계속 보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신성일 선생님께서도 설명하셨던 내용이지만, 지방직 9급은 수능 영단어 + 신성일 통합영어 단어집으로도 충분하니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4월: 문법이론과 핵심정리 강의 2회독을 끝내고 독해와 영역별 기출분석 특강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독해는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2는 1에 비해 심화 강의라고 하기에 2를 선택했습니다. 1을 들어보지 않아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강의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에서 독해 문제 유형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문법에서 배웠던 문장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형별 독해 방법 및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독해 강의는 배속 기능을 통해 강의 2편 단위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독해 2 강의와 함께 영역별 기출분석 특강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영어 문제의 각 유형별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어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 - 해설 강의( - 문법 문제의 경우 문법책에서 내용 찾아서 추가/연관 개념 숙지 및 암기)'의 패턴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어 역시 처음부터 1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여 찾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어보다 영어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이니 답을 선택하기 전에 답지를 멀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독해 2 강의를 끝낸 후에는 '실전 영문법 555' 강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법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였고, 실제로 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 이론 요약 및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의 중 하나이며, 이후 표현/생활 영어 공부와 병행해서 교재 2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포인트 : 문제 풀이 시기 공부 방법은 국어와 비슷합니다. 각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숙지하시고, 최대한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문법의 경우 기본 문법 교재의 문제를 다 풀면 전체 문제의 반을 맞힐 수 있고(9급 문법 기준 4문제 중 2문제), 그 이후부터는 약 1,000문제를 풀어야 시험장에서 1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문제의 정답을 고르기 전까지 절대 답지를 보지 마시고, 스스로 답을 선택하려고 하세요. 또 실제 시험장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을 접하시게 될 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찍는 연습 역시 필요하니 매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영어를 비롯하여 모든 과목의 문제는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한 번 푼 문제는 절대로 다시 풀지 마시고, 해당 문제를 풀고 나서 요약정리를 통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든 후 다른 문제로 넘어가세요.

5-6월: 이 시기 때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기본 20문제를 한 세트로 진행하였으나 영어의 경우에는 35분을 잡고 문제를 풀었는데, 각 문제당 최단경로 풀이 및 문제 풀이 순서를 정해 풀어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문법의 경우 틀렸을 때 문법 이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복습을 했습니다. 지방직 시험 일주일 전에는 문법이론과 핵심정리 교재 3회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영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다. 한국사**

한국사는 현 윌비스(<http://pass.willbes.net>)의 최진우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공부 할 당시에는 윈플러스(<http://winpls.com>)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고, 또 신성일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강의 패키지가 있었기에 그 패키지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내용을 모조리 외워야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척 겁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이론 강의와 교재 회독에 너무 중점을 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했던 대로 설명 드리겠지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함께 언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b>강의 커리</b>	독한국사 이론완성		독심술 핵심/문제 풀이		284 테마별 기출 문제 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독개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b>나의 커리</b>	준비 기간	독한국사 이론완성 + 2회독			독심술			284 테마별 기출 문제 풀이 교재		모의고사 문제풀이 + 동형 모의고사 + 이론 요약 표 2회독		

<표 5. 한국사 커리큘럼>

8월-11월: 최진우 선생님의 경우 입담이 좋으시고, 또 수업 중간 중간 본인의 재밌었던 일화를 섞어주시기에 강의 자체를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이지만 특히 전체적인 흐름을 강조하셔서, 이러한 시대 순 흐름을 이야기처럼 이어 설명을 해 주시기에 흐름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론완성 교재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 고대·중세사(고대-고려), 2권 근세사(조선), 3권 근현대사로 나뉘져 있고,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평균 60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강의는 약 9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업 후반으로 나아가서는 한 강의 당 약 7-80분 단위로 진행하기에 이론 강의치고는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공부 시간 4시간 동안 2-3편 정도의 강의를 보고, 남은 시간을 복습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부족할 경우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 1권을 종료하고 나서는 해당 책을 다시 한 번 회독하고 나서야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이 시기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론 강의를 들으며 1회독을 진행하시고, 같은 책의 추가 회독을 진행하지 마세요. 다음 강의인 독심술 강의는 다시 한 번 고대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각 파트별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된 표를 통해 설명하면서 효율적인 암기방법을 제공하고, 또 O, X퀴즈와 약간의 예상문제들을 제공하기에 독심술 강의를 듣는 것을 2회독이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강의 합쳐서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늦어도 5개월 안에 이론완성과 독심술, 즉 전체 이론 2회독을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 시대별로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회독 때에는 정치사의 경우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체적인 시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특정 사건들에 대한 커다란 정보를 중점으로 암기하세요. 그 외에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건져가겠다는 느낌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론 공부하는 한국사 전체 공부 범위의 외곽 경계선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고, 이후 문제 풀이를 통해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2월: 이 시기 때 독심술 강의를 들었으며, 강의 중간 암기 포인트에서 외워지지 않았을 때 일시중지 시키고 해당 내용을 머릿속에 남긴 후 다시 강의를 이어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강의를 듣고 나서는 들었던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월 말 까지 이론 2회독 이상을 진행하셨다면 1월부터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 내용을 잊어버리는 걸 겁먹지 마시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시대별 모의고사(고대/고려/조선/근현대사)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3월에는 기출 문제 및 파트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3월-6월: 3월부터는 인강을 들으며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강의를 듣지 않았고, 284 테마별 기출 문제 풀이 교재의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면서 이론서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강의 프린트물로 문제와 정답, 그리고 약간의 해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만 출력하여 남은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앞서 이론완성 2회독과 독심술을 통해 회독수가 누적되어 있었기에 그나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있었으며, 이론을 공부할 때 보다 오히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는 20문제 15분을 한 세트로 구성해서 진행했고, 지방직 시험 일주일 전에는 284 테마별 기출 문제 풀이 교재에 포함된 이론 요약 표를 2회독 하는 것으로 한국사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 3월-6월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 테마별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틀리는 빈도가 높은 부분들을 집중 점검하시고, 그러한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 : 앞서도 언급했듯 이론 강의가 외곽 경계선을 그리는 작업이었다면, 문제 풀이는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훌륭한 그림이 될 것이기에 시험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세요. 문제 풀이와 이론의 비중을 7:3를 기준으로 잡고, 본인 수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책에 나오는 모든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우 선생님의 강의 때도 언급되지만 연도의 경우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외우는 것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즉, 모든 내용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외워 나가야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는 선생님의 강의 때 설명을 해 주시니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자료조직개론 및 정보봉사개론은 패스원(<http://passone.net>)의 신인수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사서직을 준비하면서도 자료조직개론 혹은 정보봉사개론 둘 중 한과목만을 선택하고 다른 선택과목으로 사회나 행정학 등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진로 계획과 선택과목들의 체감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b>강의 커리</b>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단원별 기초 문제풀이	기본 모의고사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유형 적응 모의고사	로드맵 + 최종동형 모의고사	-
<b>나의 커리</b>	준비 기간	2014 자료조직개론 + 2014 정보봉사개론	2015 자료조직개론 + 2015 정보봉사개론	이론교재 3회독	단원별 기초 문제풀이	기본 모의고사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유형 적응 모의고사	로드맵 + 최종동형 모의고사	이론교재 4회독	랜덤 1,000제 문제집	

<표 6.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커리큘럼>

8월-12월: 9월부터 2015년 대비 강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8월에는 2014년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강의를 이어서 들었으며, 강의를 끝낸 뒤 12월 한 달 동안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3회독을 끝냈습니다. 전공 공부는 한국사를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회독 때에는 전체 공부 범위의 외곽 경계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접근하였으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최대한 1회독 시기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회독 때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가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포인트 : 정보봉사개론 과목에 정보검색/디지털 도서관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정보처리기사나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쉽게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수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취득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전공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자격증 등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과목당 가산점 1점은 총점 5점(공통과목 문제 하나를 맞혔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점수)에 해당하는데, 이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론서를 접하실 때 교재가 14년 중순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을 기억하시고, 각 서비스 기관들의 제공 서비스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sup>9)</sup> 사소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해당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언급하는 부분이니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5월: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각 문제풀이 강의는 주1회로 자료조직개론은 '분류'·'목록'으로, 정보봉사개론은 '정보봉사'·'정보검색/디지털 도서관' 네 파트로 나누어져 각 20문제씩 80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작성한대로 월요일에는 분류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고, 문제가 출제된 부분들을 이론서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시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 '랜덤 1,000제' 문제집<sup>10)</sup>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정보봉사 문제를, 수요일에는 목록 문제를, 목요일에는 정보검색/디지털 도서관 문제를 풀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랜덤 1,000제 문제집에서 해당 요일 과목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공부 할 때에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실강을 들었기에 금/토요일 일정을 조정해서 공부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표 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월에 있는 로드맵 강의는 이론서를 회독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포인트 : 타 시험에 비해 지방직 전공 시험이 대체로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하나, 최근 기출 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풀이 강의나 랜덤 1,000제 문제집에서 풀어볼 수 있는 국립 중앙 도서관, 국회 도서관 등에서 기출 되었던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가려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 난이도의 문제를 두루 접하여 앞으로 내가 볼 시험은 작년보다 더 어렵게 기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수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특정 문제에 대해 다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등은 신인수 선생님에게 문자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leaderstudy>)를 통해 언제든지 여쭙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6월: 6월에는 6월 중순까지 남은 랜덤 1,000제 문제집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시험 전 까지 이론서 4회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 공부를 마무리 했습니다.

### 3. 면접 준비 기간 (15. 07. 31. ~ 15. 09. 07.)

7월 31일 필기 합격자 명단에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표 바로 다음날 있던 패스원 면접 특강인 스티마 통합 지방직 면접 특강을 듣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인강을 제공하지만 굳이 실강을 들으러 간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면접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실강 참가자들에 한해 지역별 스터디를 구성해주는 점이 큰

9) 실제로 RISS(<http://www.riss.kr>)의 경우 14년 12월 31일자로 VSC와 Chronicle의 구독이 만료되어 홈페이지에서 빠지고 LION 과 The Vogue Archive가 추가되었는데, 15년 5월 진행된 최종정리 로드맵 강의에서는 업데이트 사항이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16년 강의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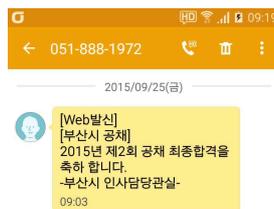
10) 신인수 선생님께서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시며, 카페(<http://cafe.naver.com/leaderstudy/19026>)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의 중 행정직 2명, 세무직 1명, 보건직 1명, 녹지직 1명, 사서직 1명 총 6명으로 구성된 부산 지방직 스터디가 구성되었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준비 후 8월 6일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인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공과 관련하여 8월 4일 신인수 선생님께서 필기 합격자 미팅을 열어주셔서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전공과 관련된 면접 이야기들을 들은 것은 물론 면접 참고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전체 설명 이후에는 개별 면담 시간을 내어주셔서 제가 미리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8월 6일부터 서면에 위치한 스터디룸을 장기 대여하여 본격적으로 스터디에 매진했습니다. 첫 2주간은 화, 목, 토 14:00부터 18:00까지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각자 준비한 시사 및 현안 자료들을 나눠보고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과, 21일 필기 합격자 제출 서류에 포함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서로 첨삭해주는 시간으로 활용했고, 2주 후부터 면접 전까지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00부터 20:00까지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합 지방직 면접 특강에서 언급되었던 부산시 면접은 세부 현안이나 압박 면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모의 면접 시 면접관 역할을 하는 스터디원이 전공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여 전공 관련 질문을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면접 준비 기간 중 부산시에 있는 34개의 공공 도서관 중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 분의 사서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기회를 통해 이론 교재로 접했던 도서관과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게 될 도서관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를 진행해가던 중 마침내 8월 31일과 9월 2일 행정직 스터디원 두 분이 면접을 보셨고, 9월 4일 세무직 스터디원께서 면접을 보셨는데, 행정직과 타 직렬의 면접 질문 구성이 다를 것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시사 및 현안보다 전공 이론 및 전공 질문 리스트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면접 준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9월 7일 오전에 실시된 면접은 한 분은 행정직, 한 분은 사서직으로 추정되는 두 분의 면접관님과 진행하였으며,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자기소개를 해 보라, 대한민국을 소개 해 보라, 이때까지 읽었던 역사책 중 하나를 소개 해 보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면 보병 병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통신 병과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고 지방직에 지원하였나?,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를(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것)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까지 대략 8-9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타이머를 사용해서 대략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편하게 면접을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것처럼 기분 좋게 면접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사진1. 최종 합격 문자 메시지>

#### 4. 맺는말

수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동안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가족들과 응원해준 친구들 덕택에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수험 생활을 회고하는 마음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다소 장문의 글이 되었는데, 이 글이 앞으로 수험 생활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추후 합격하시어 공공 도서관 사서로서 일하게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힘닿는 데 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